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기독교인은 도적맞고 있다

루가 16,1-8

예수께서 한 이상한 예화를 들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청지기(지배인)를 두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을 배신하여 그 재물을 낭비해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분개해서 추방하기로 선언하고 그에게 결산하도록 명령했다. 당황해진 이 청지기는 이때부터 처참해질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캄캄하여 생각다 못해 마침내 간교한 꾀를 생각해 냈다. 대개 한 악은 두 악을 낳고 한 거짓을 가리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간교한 거짓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과오 때문에 오는 자기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다가 보다 더 무서운 사기죄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청하여 그들의 채무를 그 정도에 따라서 마치 자기 재산과도 같이 탕감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는 이 같이 간교한 방법으로 저들을 사귄으로 해임 후에 저들의 보응을 받으리라는 간사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전율할 만한 무서운 범죄이다. 악하거나 몰라서 지은 죄는 그래도 동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같은 고의적인 범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예를 드신 예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주인의 칭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이것을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것은 못된 실리주의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좋고 목적이 좋은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본래 예수는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뚜렷이 선포된 것이요 남의것을 탐내는 정도도 용인하지 않거니와 그는 언제나 목적과 수단은 다 함께 중요하여 일의 성과보다도 그 동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문제로 하신 것이다. 아나니아 부부는 오히려 좋은 목적으로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복음 운동에 바쳤는데 그들은 단지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명예를 사기하려다가 그만 저주를 받아서 즉사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불상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예수는 그의 사기적인 지혜를 칭찬한 것은 아닐것이다. 그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었다.

도대체 예수는 세상에 도덕을 가르치러 온 것은 아니었다. 도덕은 자명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을 일이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것은 이런 도덕이나 법률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악마가 발악하는 세상에서 이기어 나아가기에는 도덕률은 너무나 무능한 것임을 그리스도는 물론 잘 아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다. 칸트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이 마음 안에 반짝이는 도덕률에 대해서 황홀한 찬사를 올리지만 성경은 도덕을 향해서, 도덕지상주의자를 향해서 오히려 “죄”라고 선포하고 도덕을 고집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 까닭은 도덕주의는 자기의 양심을 왕 위에 올려 놓고 거기에 지상의 권위를 줌으로 자기 생활 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간섭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이성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월권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겸비한 철학을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면에 인간이성의 한계를 그음으로써, 인간의 울타리를 쌓음으로 하느님의 간섭을 배격(보이콧트) 한다는 무서운 교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는 이 예화를 도덕적인 교훈으로 하신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는 필시 이 불의한 사실에 관한 예화를 통해 도덕보다 높은 세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대체로 어떠한 악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악은 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언제나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 그 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히려 배가된다. 참 악을 정복하는 길은 악을 공격하고 비난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가지고 있는 선을 빼앗아야만 한다. 즉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선을 해방시킴으로써 악은 스스로 정복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 현실 안에 사로잡혀 있는 도덕 이상의 선한 것을 발견하신 것이다. 그것은 곧 하늘 나라의 편모이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맨처음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이었다. 하늘 나라의 선포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 하늘 나라의 도래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물질중심의 질서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의 한계를 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왕노릇을 함으로써 사람이 받는 신성한 의무를 비웃는다. 하늘나라에는 이런 물질중심적인 질서가 용인될 수 없다.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에 네것 내것이라는 엄격한 한계가 용인될 수 없다.

하늘 나라에서는 이 모든 물질의 질서가 보다 더 영광스러운 질서 앞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비유 중에서 주인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그 안에 내포된 하늘나라의 편모일 것이다.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는 물질에는 지배 받지 않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 같이 마음대로 이용하여 저 빈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이다. 그 청지기는 물론 악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최소한 이와 같은 선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같은 사실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손에서 불순한 목적과 사기적인 수단으로 되지 않고 빛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의로운 목적으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승리로써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선할까? 주인을 속여서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으로 정복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물론 불의한 지배인의 행위가 그대로 천국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 죄는 끝까지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구부러진 선, 더럽혀진 선인 것이다.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 주인의 칭찬, 그 비유를 들은 그리스도의 뜻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비유 다음에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나는 그속에 담긴 주인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참 저 놈은 죽일 놈이라도 그 하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다. 아! 어쩌다가 저같은 좋은 일이 저런 악한 놈의 불의한 목적에 농락을 당하고 있나!” 이 칭찬 중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저놈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빛의 아들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선한 사명을 지니고 소망도 갖고 있지만 몸이 허약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거리에서 용감하게 불의를 행하는

불한당의 건강을 칭찬하는 심정과도 같다. “아, 참 건강하다. 저놈의 건강이 내 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악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악을 정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악한 조류에 휘감겨서 끌려가고 있다. 소위 ‘사회악’을 문제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정치계로 나가는 기독교인은 대개는 이런 것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자마자 그 악에 합류되지 않으면 공연히 맹목적인 발악으로 도전해서 마침내 그 악을 배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실의 여러 악 중에서 대표인 예로 공산주의를 들어 보자. 공산주의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악의 대표적 예이다. 이것에 대한 빛의 아들들의 태도들은 어떤가? 그것은 거의 일관되게 반발적인 반향과 도전이었다. 저들은 공산당이라면 이를 가는 것으로 애국심을 표하였다. 저들의 최대의 슬로건은 저 악당들을 때려 부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고집한 결과 무슨 소득이 있었는가? 공산주의는 오늘날 전인류를 불안하게 할 강한 매력을 가지고 확장되고 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선한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비전은 선한 것이다. 저들의 혁명은 확실히 통쾌한 선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저들은 자본주의의 인권 유린과 착취 그리고 이기주의와 거기에 따르는 향락주의를 타파하고 공동체적 삶을 꾀했다는 것은 분명 선한 것이다. 물론 저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사기꾼들이다. 공산주의란 평소에 자기의 임무를 게을리하다가 필경 이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 최후로 생각해 낸 것이 “세계 무산대중을 위하여”라는 깃발을 들고 남의 토지와 재산을 마치 자기의 것인듯이 마음대로 분배한 것인데, 그 동기는 결국 자기 구출에 있었던 것이다. 저들의 악행은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 속에 갇

혀 있는 선한 것을 함께 증오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저 주인과 같이 저들의 한 일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저들과 싸워야한다. 그 힘들을 떨쳐야 한다. 떨 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그 악한 것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선을 해방하는 길은 저들의 선보다 나은 선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오늘날의 빛의 아들들이 저 세상의 아들들만큼 지혜가 있다면, 만일 오늘의 저 투지와 저 헌신과 저 목표와 저 실적이 무자비와 사기와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빛의 아들들의 손으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승리로써,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실천을 도적 맞고 있다. 저들이 잠고 있는 동안 저 불의의 청지기는 그리스도교에서 아름다운 이상을 빼앗아 자기네의 구호로, 깃발로 삼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하늘나라의 비전이 유린당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랑이, 자유가, 평등이, 저 악당들에게 사로잡혀서 저들의 삶의 터를 닦는 데 이용되고 있다. 저들은 저 도적인 선한 것을 미끼로 무거운 짐에 눌러 있는 불쌍한 민중들을 낚고 있다. 저들은 온 세계를 무대로 마음대로 사기치고 있다. 공산주의를 이렇게 한 책임은 그리스도교에 있다. 대체로 참 선생이 없을 때는 거짓 선생이 나타나고, 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에서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그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권력과 야합하여 특권층으로 안주했고 자본주의에 아첨하여 이기주의로 떨어졌다. 세상에는 공산당이 배양되었고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군정청(軍政廳)에, 정부에, 모리배에게 웃음을 파는 동안 공산당은 사회의 혼란과 빈궁을 미끼로 그리스도교의 슬로건을 내 걸었다.

노동자에게 주권을, 농민에게 토지를, 마치 자기 물건 같이 내어 준다고 약속했다. 우익 지도층이나 목사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 도시로 도시로 몰려 드는 동안 공산당은 대학을 나와서 시골로 시골로 가서 주인 없는 곳에서 왕노릇 했다. 분명히 저들은 용감했다. 자기의 주의(主義)에 대해서 충실했다. 비록 자기류(自己流)나마 정의감이 불붙었다. 사회악에 대해서 통렬한 수술칼을 가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주인이 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것이 염려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라도 일어나서 잃었던 제 것을 도루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